

제주신공항 건설 등 SOC사업 차질 우려

박근혜정부 향후 5년간 SOC예산 70% 삭감
 남조로 확장 등 국고보조사업 지연 불가피

박근혜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하면서 제주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SOC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첫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재정전략회의는 박 대통령 임기 중 이행할 140개 국정과제 중 예산 135조 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 관계자는 "SOC 예산을 매년 깎아 5년 뒤에는 현재의 70% 선까지 줄이는 방안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가능한 지방공약 이행만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SOC사업이어서 지역 국책사업의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앞으로 4년간 SOC 예산 11조8000억 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SOC 예산의 절대액을 차지하는 도로에서 4조 원, 철도에서 4조5000억 원 가량을 각각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SOC 예산 삭감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약속했던 지방공약과 맞물려 있어 남조로 확장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함께 정부는 8년 만에 3

배 이상으로 불어난 연간 55조 원 규모의 985개 지방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수술에 착수한다. 지방 국고보조사업은 2003년 533개에서 2004년 359개로 줄었으나 MB정권을 거치면서 다시 불어났다. 지난해말 985개로 8년 만에 3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 규모도 지방예산 기준 2004년 18조8693억 원에서 올해 55조662억 원으로 급증했다.

안정행정부부는 이외에 최근 151조 원에 달하는 지방예산 중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당초 예산 대비 5% 이상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세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재정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기능분리를 바탕으로 지방소비세, 교부세,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개편키로 했다. 지자체도 지방재정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처럼 세출구조조정이 피할 수 없는 만큼 내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지역의 반발은 내년 정부예산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영성기자 vswi@ihalla.com



보리 수확 초여름 날씨를 보인 21일 황금물결이 일렁이는 제주시 하귀리의 보리밭에 한 농민이 올해산 보리를 첫 수확의 기쁨에 활짝 웃고 있다. 강경민기자

‘제주발담’ 세계농업유산 등재 분수령

이달말 일본서 FAO 세계농업유산시스템 국제포럼
 ‘제주발담’ 한·중·일 워크숍·포럼 두차례 공식 발표

제주의 농업유산인 ‘흑룡만리 제주 발담’을 국가농업유산에 이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첫 시험대가 다가왔다. 우리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발담’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농업유산시스템(GIAHS)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공식 일정으로 오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GIAHS 국제포럼과 한·중·일 농업유산자원 워크숍에 참가한

다. >>관련기사 7면 이 포럼에서 대한민국 국가농업유산인 ‘제주 발담’과 완도 ‘구들장 논’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제주 발담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 시각에서 조명을 받는 무대다. 이 발표 후에 현장 실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FAO의 국제포럼에서 제주 발담은 한중일 농업유산자원 워크숍과 FAO포럼 등 두번에

걸쳐 발표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와 전문가 그룹의 TF팀은 포럼 발표에 앞서 20일 오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최종 리허설을 마쳤다.

제주자치도와 TF팀은 FAO 국제포럼에서 ▷농업유산 ‘흑룡만리 제주발담’ 시스템의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역사성 ▷현대적 의미 ▷위험과 도전 ▷보존을 위한 노력 ▷보존·활용을 위한 액션플랜(실행계획)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천년 이상 이어온 발담을 통해 제주민들이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농업 활동을 이어온 지혜와 문화·경관·역사적 특성을 강조하고 세계농

업유산으로서의 등재 가치를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의 푸에 톤 차 농업, 일본의 사도 마요기 공생농법 등 11국 19개 유산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돼 있으며 미국, 이탈리아,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19국 13개소가 후보목록에 올라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일본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제주 발담을 세계농업유산으로 홍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제주 발담의 중요성과 가치를 집중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시영·김지은기자

무인방제 헬리콥터 지원대상 2곳 확정

적기 방제·일손부족 등 해소

제주지역에도 본격적인 무인 헬리콥터를 이용한 방제 시대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무인항공 방제사업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무인 방제 헬리콥터 지원대상자로 합덕농협, 동아영농조합법인 2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무인방제 헬리콥터 지원 사업은 제주자치도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자체 시범사업으로 농촌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 해소를 비롯한 병해충 적기 방제, 농약중독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생산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적 방제 효과도 기대된다.

최종 선정된 2곳은 헬리콥터 1대 구입비 1억8000만원 중 1억8000만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자부담은 7200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급되는 무인방제 헬리콥터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보험가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농민들의 호응도와 방제 효과성을 검토해 향후 추가 보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동아영농조합법인, 다함양공영농회사법인 등 2개 법인에서 무인헬기 2대가 운영중이다. 문의 710-3051.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 공공보건의료 조례제정 난항 예고

의료기관 지원규정 전문

제주자치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4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입법예고를 하고 최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도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

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노력해야 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의료기관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

정이 없고 아울러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도입 체감도 향상을 위해선 민간영역이 어떻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도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안전망 성격으로 심야약국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 병의원도 심야에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대안이 없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보험료 지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일반보건의료기관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점에서 이번 조례는 의의가 있다”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모기자

전국 민방위행사 9월 서귀포서 개최

전국단위 민방위 행사가 서귀포시에서 개최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9월 23일 서귀포컨벤션센터에서 3000여명이 참가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정부

행사가 개최된다고 21일 밝혔다.

제38주년 민방위 창설기념 정부주관 행사가 제주에서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숙기자

www.kepco.co.kr

한라일보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2013 New Start, AGAIN KEPSCO

2009년, 에너지 강국을 만든다 [UAE 해외 원전 수출]

1982년, 국제 경쟁력을 갖추다 [한국전력공사 출범]

1961년, 근대 사회를 이끈다 [한국전력주식회사 발족]

1898년, 대한민국에 빛을 밝히다 [한성전기회사 설립]

115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대한민국 성장 에너지!

이 땅에 최초로 어둠을 밝히며,
 115년간 대한민국의 빛이 되어온 기업!
 한국전력의 오랜 역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자리잡는다

한국전력 제주지역본부